

전남교육 실험 '무안 거점고' 내달 개교

현경·해제고 통합... 무안고 '맞춤교육' 주목

우수 학생 대거 몰려 새 명문고 탄생 기대

전남교육의 실험 '무안 거점고'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현경고·해제고를 통합한 무안고가 개교하면서 '떠나는 무안'에서 '돌아오는 무안'으로 탈바꿈했다. 성적 우수 학생 대거 몰려 전남의 새로운 명문고의 탄생을 기대된다.

3일 전남도교육청과 무안고등학교(교장 박영득)에 따르면 무안고는 인근 현경고와 해제고를 통합해 오는 3월2일 새출발 한다. 3월17일에는 개교식이 열린다.

무안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된 대입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의 교

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현경고, 해제고 등 3개교를 통합했다.

사업비 429억원을 들여 교과교실제와 최신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고, 3층 규모의 창의예술센터와 호텔식 기숙사를 건립했다. 학력 관리를 위한 수준별·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학습, 진로·진학지도 강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무안고가 거점고가 되면서 신입생 모집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인제 유출에서 유입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무안지역 중학생 46%가 목포 등으로 유출됐다. 하지만 올해는 반대로 목포·

? 거점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특장교를 거점고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학생 수가 급감해 정상 수업이 어려운 농어촌 고교의 통합을 통해 적정 규모화하는 것이다.

신안지역에서 24%가 유입됐다. 무안고는 올해 신입생 7학급, 210명 모집에 224명이 지원했다. 모처럼 정원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무안 170명(76.9%), 목포 34명(15.4%), 신안 15명(6.7%), 기타 5명(2.2%)이었다.

우수 학생도 몰려들었다. 중학교 내신 성적 5% 이내 학생이 14명에 이르고, 10% 이내까지는 30명에 달했다. 특히, 5% 이내 학생 중 무안지역 중학교 출신이 12명을 차지해 지역 우수 학생들이 거점고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고가 전남지역 명문인 장성고·장평고·능주고와 같이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박영득 교장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이상이 지원했다. 우수학생 유치에도 성공했다"며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질적으로 향상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무안고를 비롯해 나주고, 보성고, 해남고, 완도고, 고흥고, 별교상고, 영광공고, 도초고, 해남공고 등 10개교를 거점고로 개교했다. 앞으로 강진고와 함평하리고도 거점고로 거듭난다.

거점고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0
해질 18:03
달맞이 18:29
달질 07:15

임춘대길(立春大吉)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6	보성	구름많음	-3/6
목포	구름많음	-1/4	순천	구름많음	1/7
여수	구름많음	1/7	영광	구름많음	-4/5
나주	구름많음	-4/6	진도	구름많음	-1/5
완도	구름많음	-1/5	전주	구름많음	-4/5
구례	구름많음	-4/6	군산	구름많음	-4/4
강진	구름많음	-2/5	남원	구름많음	-5/4
해남	구름많음	-2/5	홍산도	구름많음	2/4
장성	구름많음	-4/5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안바다	북서	남서	북서	남서	
안바다	북서	0.5~1.0	북서	1.0~2.0	북서	1.0~2.0
남부	북서	0.5~1.0	북서	1.5~2.5	북서	1.5~2.5
남해	북서	0.5~1.0	북서	1.0~1.5	북서	1.0~1.5
서부	북서	1.0~2.0	북서	2.0~3.0	북서	2.0~3.0
안바다(서)	북서	1.0~2.0	북서	1.5~2.5	북서	1.5~2.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16	07:40
	14:56	20:11
여수	밀물	썰물
	09:41	03:15
	21:47	15:41

◇주간 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	☀	☀	☀	☀	☀	☀
-3/5	-2/5	-2/6	-2/3	-4/3	-3/6	-2/6

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씨, 사무장 등에 책임 전가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사무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범칙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부 상무과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

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의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사무장과 변호인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조 전 사무장이 하기 지시를 내린 것은 박정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조 전 사무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운을 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도로 포트홀 메우기

3일 오후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이 동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겨울동안 잦은 폭설과 제설제 살포 등으로 생긴 포트홀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범대·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질평가' 강화

올 7월 '4주기 평가'... 2017학년부터 정원 감축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원의 양성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정성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4주기(2015~2017년) 교원양성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교육대학,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할 때 정량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정성지표를 다양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범대는 4주기 평가지표 22개 중 정량지표는 13개이고 정성지표가 7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한 지표는 2개로 구성된다.

수업의 질 관리, 재학생 만족도, 현장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실적

등이 추가된 정성지표다.

교육부는 3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개최할 공청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된 뒤 오는 7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460여 개 모든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육대 10개교와 사범대 46개교가, 내년에 일반대 교육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120개교가 각각 평가를 받으며 2017년에는 전문대 128개교가 평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나오는 첫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합뉴스

부동산 실명법 위반법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항이다. /연합뉴스

550만명 이용 '날씨 앱'

오늘부터 다운로드 중단

550만명이 내려받은 인기 공공 애플리케이션 '날씨 앱'이 4일부터 다운로드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 앱과 웹사이트

의 운영·개발을 제한하고 비인기 서비스는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 앱과 웹사이트 서비스를 정비하고 '문지마' 개발을 막아 민간 영역에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대한보청기 광고심의번호 :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1,2,3' **맥소'애비오'** **맥소'스콕프'** **맥소'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388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1599-9040

안녕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